

(특강-5)

인삼의 이름에 대한 고찰

박 훈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인삼”이란 이름은 원산지(한국)에서는 “한 이름 한개 식물”로서 식물학적 고유명사인데 반하여, 비원산지에서는 “최고의 영양”이라는 기능성을 갖는 식물로서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즉, 비원산지에서는 *Panax ginseng*이 아닌 *Panax*속의 이종 식물에도 “인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아니라, 심지어는 *Panax*속이 아닌 식물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10 가지 이상의 식물이 “인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비원산지에서 고유명사의 보통 명사화는 의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상업적 목적의 동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학자들도 명예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와 한문 이름의 상호 번역에서 오는 이름의 혼용도 있다. 인삼의 우리말 이름은 “삼”이고 그것이 중국에서 “삼”으로 변했으며 여러 가지 유사 삼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인삼”으로 변하였다, 현재는 명예적 목적으로 중국을 인삼의 원산지로 만들려는 중국학자들이 있으며 서양에서는 미주삼이 고려삼과 대등하다는 것을 *ginseng*이란 이름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지구 한 마을 시대에 있어 과학자들은 인삼 용어의 분명한 사용으로 사물 인식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인삼 산업계는 지구촌 한 장터 시대의 지구촌 소비자들을 위하여 ‘한 이름, 한 재료’라는 상품 인식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지켜 국내외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인삼 용어의 혼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Panax ginseng*만을 “인삼” 또는 “*ginseng*”으로 호칭하여야 할 것이다.